

요셉의 감옥생활은 특별했다. 비록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특별한 감옥이었다. 강간미수로 잡혀온 노예가 있을만한 곳이 아니었다. 친위대장 보디발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잡범 요셉’을 왕의 죄수들과 함께 가둔 것이다. 요셉의 생활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감옥의 간수장은 보디발이 그랬듯이 모든 제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겨버렸다.

####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굶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 창세기 40:1**

감옥에서 요셉은 파라오의 음식과 음료를 담당하는 신하 두 사람을 만난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두 신하는 꿈을 꾸었고 요셉은 그들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 주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 창세기 40:8**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꿈은 신탁의 수단이었다. 꿈을 해석하고 미래의 일을 짐작하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이었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 점술가, 술객(현인)이 맡고 있었다. 꿈의 의미는 알고 싶으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만날 수 없었던 신하에게 요셉은 확실한 해답을 주었다. 풀려난 신하는 애굽의 점술가나 현인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을 이방인 노예 요셉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 창세기 40:14**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대로 풀려날 것이 확실한 신하에게 요셉이 간청한다. 파라오에게 잘 좀 말해주세요. 저 좀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 당연하지가 않다. 요셉의 간청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요셉은 가나안에서 팔려온 노예다. 게다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다가 수감된 죄수다. 정식 이집트 시민도 아닌 노예, 강간미수로 수감된 죄수가 감히 파라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하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요청이다.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갇혔다가 간신히 누명을 벗고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는데 감옥에서 만난 ‘억울한 짚은이’를 풀어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요셉은 그렇게 잊혀졌다

#### **만 이 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꾀즉 자기가 나일 강 가에 서 있는데 / 창세기 41:1**

그러나, 이 말도 안되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파라오에게 요셉을 소개할 수 밖에 없는 일이 생긴 것이다. 파라오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집트의 점술가, 현인들 중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것이다. 파라오는 신의 대리인이고 그 자체로 신과 같다. 파라오의 꿈은 신탁 중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석되어야 했다. 더 이상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낸다.

그는 이 년 전 감옥에서 겪은 일을 파라오에게 설명했고 요셉은 감옥을 나와 파라오를 만나게 된다. 파라오의 꿈에 대한 요셉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었다. 앞으로 닥쳐 올 대기근을 예고하는 꿈이며 흉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대처 방안까지 선명하게 제시했다. 감명 받은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로 삼고 전국을 다스리게 한다.

요셉의 삶은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사실 요셉의 삶은 ‘형통’이라는 말을 적용하기 힘든 것이었다. ‘형통’이라는 말이 요셉에게 쓰일 때 그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찾아보라. 이집트까지 끌려와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되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기록되었다.

대체 무엇이 형통하단 말인가? 노예가 감옥에 갇힌 것을 우리는 형통하다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에 대한 가장 흔한 적용은 인정과 출세다. 보디발과 간수장, 파라오의 인정을 받고 젊은 나이에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이렇게 출세한다, 우리도 요셉처럼 될 수 있다. 꿈을 가져라, 비전을 크게 가져라,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 다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한다.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요셉이 형통했다고 증거한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렸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고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치닫는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린 것,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요셉에게 형통함이 되었다. 감옥은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했다. 노예가 총리가 되는데 십삼 년이 걸렸다. 이보다 더 빠른 길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을 때, 감옥에서 잊혀진 죄인이 되었을 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던져졌어도,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사람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최적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요셉의 형통함이었다.

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은 우리 생각에 전혀 형통이 아닐 수도 있다.

\*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삼십 세. 십칠 세에 노예로 팔렸으니 십삼 년 만이다. 요셉은 삼십 년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다.

\*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요셉의 결혼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요셉은 파라오의 명령에 의해서 ‘온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다. ‘온’은 도시 이름인데 후대의 그리스인들은 히에로폴리스(태양의 도시)라고 불렀다. 태양신(라)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요셉의 장인 보디베라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다.